

경제논술 스터디 방법

1. 목차 구성

답안 작성 시 목차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지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채점자가 모든 수험생의 글을 읽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논술 작성 전 목차구성 시간을 10분 정도 잡는 것이 좋다.

합격생 답안을 확인해보면 어떻게 구성을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서론

중국은 최근 기준 금리 0.25% 상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더블딕에 대한 우려측에서도 뜻밖의 결정을 한 중국정부에 대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금리인상 배경과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한 배경

1.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중국은 최근 10%의 고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땀나 우려 또한 급증해왔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부동산, 주식 시장 등에 자산 버블을 유발해 경기 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다.

2.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려 있다고 주장해왔다. G20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 압박을 무모화 시키고, G20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금리를 인상했다.

III. 중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중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외환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고 달러 등의 외환의 가치가 하락 하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환율이 하락한다. 중국의 환율이 감소할 경우 중국 수출 제품이 가격이 상승에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중국 제품의 교역 규모가 매우 크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금리 인상은 중국 국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중국 경제가 침체 될 수가 있다. 13억 인구의 대규모 시장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경기침체로 수출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금리인상은 자국 뿐만아니라 대중국 최대 교역국가인 한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중국 금리인상을 통한 위안화 가치 절상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원자재의 많은 비중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한국은 원자재의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 시키게 되고, 결국 비용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

IV. 결론

중국은 금리인상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경기과열을 막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종식시킴으로써 일거 양득의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내 경기악화,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 경제에는 대중국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및 비용증가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금리인상을 통한 위안화 절상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2. 경제 신문을 읽을 것

경제신문을 통하여 최근 경제 이슈를 매일 체크해야 한다.

엔저(円低)가 심리적 저지선이던 달러당 100엔 선을 뚫었다. 엔저는 한층 무서운 기세로 한국 경제를 공습하게 됐다. 한국 경제가 ‘달러당 세 자릿수 엔화가치’ 상황에 내몰린 것은 2009년 4월 14일 이후 4년1개월 만이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무제한 돈 풀기로 대변되는 일본의 (1) ‘아베노믹스’와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달러당 100엔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렸다”며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부양정책을 공언한 만큼 엔화가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1) 국내 금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날 7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에 20포인트 이상 올랐던 증시는 3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34.70포인트(1.75%) 하락하며 1944.75로 마감했다. 한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코스닥 지수도 569.70으로 전날보다 3.65포인트(0.64%)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 주가가 2~3% 동반 하락했고 철강·기계·조선 업종 등의 주가도 2% 이상 내렸다.

KDB대우증권 서대일 선임연구원은 “엔화가치가 달러당 100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 증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당분간 증시의 반등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2) 엔저 가속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초대형 악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엔화가치가 달러당 100엔이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8%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125억 달러 감소(달러당 94.5엔 대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00엔보다 높았던 1~4월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은 브라질(-19.9%)·터키(-8.1%)·인도네시아(-7.6%)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주력 수출업종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동차 업종은 특히 엔저의 상처가 깊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6만1501대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전년 동월비 수출 감소는 2월부터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엔화 대비 원화(엔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12%가량 감소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엔저 대응을 해오고는 있지만, 달러당 100엔 선이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며 “24시간 환율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인 미국 시장에

서 그동안 국내 업체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파는 차의 상당수가 현지 생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저로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일본차의 공격적인 영업은 한국 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닛산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 중인 18개 모델 중 7개 모델 가격을 최대 10.7% 낮췄다. 도요타는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기준) 영업이익이 5년 만에 1조 엔을 넘었다. 1년 전보다 3.7배 늘어난 규모다. 도요타는 한국에서 파는 캠리·프리우스 등의 가격을 5월 한 달간 300만원 낮춰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선박해양구조물 부문의 수출도 1분기엔 27.3% 급감했다. 원자재 비중이 큰 철강도 14.5% 줄었다. (2-3) 여행업계는 일본의 5월 황금연휴 특수를 놓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여행사 10곳 중 9곳(93%)에서 일본 ‘골든 위크’ 기간 중 일본인 관광객의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호텔의 일본 투숙객은 20~30%, 백화점의 일본 관광객 매출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엔저로 인해 밖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규제가 강화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동안 달러당 100엔 선은 전 세계 외환달러들 사이에 일종의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 마지노선이 뚫리면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경제의 속성이다. 시장에선 엔화값이 달러당 105~110엔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엔저는 단순히 몇몇 한국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성태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은 이면에는 항상 엔저가 있었다”면서 “통화당국은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검토하고 외환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엔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어지는 국내 피해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00엔이 깨졌다고 하지만 이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큰 것일 뿐”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대응보다 엔저에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이 대책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엔저에 대해 당연히 고민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3) 정부는 그동안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등 ‘외환규제 3종 세트’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채권거래세 같은 ‘한국형 토빈세’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선물환 포지션과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손대기 쉽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엔저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엔화 약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느슨했다. 당시 현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출된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수출 등에서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우리 브랜드와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면서, (2-4)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일본경제를 부활시킬 수단으로 엔화 약세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2-1) : 주가 하락 - 주가 급락으로 5월 11일 하루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20조원 감소

(2-2) : 수출산업에 타격 - 석유화학, 전기,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산업의 수출감소

(2-3) : 일본인 여행객 감소

(2-4) :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

(3) 대책

1) 정부대책 - 외환규제 및 규제완화

최근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각종 법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예를 들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유해 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2) 기업대책 - 품질향상과 기술 개발, R&D와 원가절감 노력 필요, 해외진출 및 FTA 활용

(IT 업체의 경우 일본 업체와 비교해 단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품질 경쟁력에서도 앞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4) 향후 전망

(4-1) 미국 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달러 강세 여부

(4-2) 엔저 정책에 따른 일본 경제의 회복 여부

(4-3) 엔캐리트레이드의 부활여부

3. 각종 경제연구소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무역협회 자료, 삼성 및 현대 경제연구소 보고서 등을 통해 최신 경제이슈 등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자.

4.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터디가 필수다.

스터디를 통하여 서로의 답안을 비교해야 본인의 답안 구성이 다른 경쟁자보다 나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해야 한다.

처음 준비할 때는 무조건 쓰지 말고 공부하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